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김 미 란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정보화, 다양화 사회에서 개인은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심각한 실업문제,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혼돈 및 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고민사항 중 '진로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수립, 지원해 줄 진로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을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조사 분석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첫 단계인 진로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로인식수준과 자아존중감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인식수준은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아존중감은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인식수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인식의 결정 요인

진로 결정을 포함하여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Ginzberg(1951)는 진로 결정 요인으로 흥미, 능력, 가치관들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 세계와의 타협으로 그 요인을 들었다. Super(1963)는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유형, 적응의 계속성, 생산 단계, 진로 유형, 발달의 지도 가능성, 개인의 교육적·사회적·직업적 생애 유형 등의 요인을 들었다. Mitchell & Krumboltz(1990)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등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학습경험과 과제접근 기술을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김봉환, 2003, 재인용).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진로 결정 요인은 궁극적으로 한 개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사회에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상의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 결정 요인으로 연령, 성별, 직업적 흥미, 인성, 신체적 조건, 가정 배경, 경제 상태, 학력, 학교 배경 등을 공통요인으로 들 수 있겠다.

2.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Erikson(1950)은 아동기(6-12세)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자아 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만약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소외감,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Mack(1983) 또한 자아존중감의 성취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고 했다.

아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은 보다 안정되고 현실적으로 변해가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지속된다(Cairns & Cairns, 1988). 그러나 11~12세경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다가 고등학교시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Harter, 1990c; Wigfield et

al., 1991).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동의 자아의식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평가 또한 엄격해지게 된다(송명자, 2001).

아동이 겪는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사회적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아동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평가에 기초가 된다(김경중외, 1999).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아동기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커서 자아존중감은 대부분의 아동에 있어서 자기 달성 능력으로 작용하며, 아동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확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아동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기의 행동양식을 결정 지어 주므로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마. 진로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이론

진로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론에는 균형 이론과 인지-지각 이론이 있다. Korman(1966)이 제안한 균형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 의사 결정 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Super(1951, 1955, 1957)는 인지-지각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과 다양한 직업적 역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지각하며, 더 뚜렷한 직업적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도시 지역에서는 C시를, 농촌 지역에서는 S군의 4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 526명을 연구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하여 설문하였다. 540

명의 대상자 중에 설문지 응답자는 526명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97.41%를 나타냈다.

2. 측정 도구

가. 진로인식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진로인식에 관한 질문지”로 한국교육개발원(1982)의 진로교육자료집의 문항들을 참고로 조한규(1997)가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했으며,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체 32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 처리

진로인식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는 모두 5점 척도로서(1~5 범위)측정되었으며, 측정된 자료는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변인별로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평균(M)과 표준편차(SD) 및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고 유의도(F, CR)를 검증하였다. 또한 성별, 지역, 학년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IV. 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결과의 분석

<표 IV-1> 성별, 학년별, 지역별 전체 진로인식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06.670	1	106.670	.366
지역별	4900.264	1	4900.264	16.817***
학년별	755.695	1	755.695	2.593
성별 * 지역별	1109.281	1	1109.281	3.807
성별 * 학년별	3.638	1	3.638	.012
지역별 * 학년별	229.200	1	229.200	.787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290	1	.290	.001

*** p<. 001

위의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F=16.817, p<.001),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아동들의 진로인식(M=120.22, 100점 만점: 68.69)이 농촌지역의 아동들(M=113.87, 100점 만점: 65.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성별, 지역별, 학년별 자아인식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5.433	1	5.433	.115
지역별	1004.253	1	1004.253	21.317***
학년별	72.446	1	72.446	1.538
성별 * 지역별	348.208	1	348.208	7.391**
성별 * 학년별	1.484	1	1.484	.031
지역 * 학년별	24.177	1	24.177	.513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23.865	1	23.865	.507

** p< .01 *** p<. 001

위의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인식은 성별, 학년별로 p>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p<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F=21.317$), 이는 도시지역 아동들($M=35.63$)의 자아인식이 농촌지역의 아동들($M=32.77$)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

성별과 지역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7.391$, $p<.01$),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에 사는 남자 아동들($M=36.52$)의 자아인식이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 아동들($M=32.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성별, 지역별, 학년별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440	1	.440	.022
지역별	20.771	1	20.771	1.058
학년별	20.844	1	20.844	1.062
성별 * 지역별	7.763	1	7.763	.395
성별 * 학년별	.641	1	.641	.033
지역별 * 학년별	17.155	1	17.155	.874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26.534	1	26.534	1.352

위의 <표 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지역별, 학년별에 따른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표 IV-4> 성별, 지역별, 학년별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286.530	1	286.530	10.784**
지역별	174.465	1	174.465	6.566*
학년별	3.076	1	3.076	.116
성별 * 지역별	1.454	1	1.454	.055
성별 * 학년별	.194	1	.194	.007
지역별 * 학년별	1.659	1	1.659	.062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7.372	1	7.372	.277

* $p<.05$ ** $p<.01$

위의 <표 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서는 $p<.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고($F=10.784$), 지역별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었다($F=6.566$, $p<.05$). 그 내용을 보면 여자 아동들($M=34.27$)의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남자 아동들($M=32.7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의 아동들

(M=34.14)이 농촌지역의 아동들(M=32.96)에 비해서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5> 성별, 지역별, 학년별 장래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2.993	1	12.993	.457
지역별	422.134	1	422.134	14.850****
학년별	160.252	1	160.252	5.637*
성별 * 지역별	113.498	1	113.498	3.993*
성별 * 학년별	1.100	1	1.100	.039
지역별 * 학년별	54.297	1	54.297	1.910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8.926	1	8.926	.314

* p< .05 *** p<. 001

위의 <표 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은 성별에 따라서는 p>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별에 따라 p<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F=14.850), 그 내용을 보면 도시 지역 아동들의 장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M=25.88)이 농촌지역의 아동들(M=24.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F=5.637, p<.05), 이는 6학년(M=25.42)의 장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4학년(M=24.19)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지역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93, p<.05). 즉, 도시지역에 사는 남자 아동들(M=26.48)의 장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 아동들(M=23.66)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6> 성별, 지역별, 학년별 전체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48.224	1	148.224	.694
지역별	2590.960	1	2590.960	12.123**
학년별	2360.878	1	2360.878	11.046**
성별 * 지역별	3224.253	1	3224.253	15.086***
성별 * 학년별	76.177	1	76.177	.356
지역별 * 학년별	1243.688	1	1243.688	5.819*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22.860	1	22.860	.107

* p< .05 ** p< .01 *** p< .001

위의 <표 IV-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12.123$, $p < .01$),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아동들의 자아존중감($M=106.50$, 100점 만점: 66.56)이 농촌지역의 아동들($M=101.80$, 100점 만점: 63.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도 $p < .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11.046$), 이는 4학년($M=105.63$, 100점 만점: 66.01)이 6학년($M=102.05$, 100점 만점: 63.78)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지역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5.086$, $p < .001$),

<표 IV-7> 성별, 지역별, 학년별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7.834	1	7.834	.492
지역별	274.173	1	274.173	17.215***
학년별	46.403	1	46.403	2.914
성별 * 지역별	135.136	1	135.136	8.485**
성별 * 학년별	.277	1	.277	.017
지역별 * 학년별	24.471	1	24.471	1.536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62.898	1	62.898	3.949*

* $p < .05$ ** $p < .01$ *** $p < .001$

앞의 <표 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7.215$), 성별과 지역별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85$, $p < .01$).

<표 IV-8> 성별, 지역별, 학년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35.778	1	135.778	3.708
지역별	156.355	1	156.355	4.270*
학년별	62.653	1	62.653	1.711
성별 * 지역별	294.963	1	294.963	8.056**
성별 * 학년별	7.639	1	7.639	.209
지역별 * 학년별	32.141	1	32.141	.878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10.174	1	10.174	.278

* $p < .05$ ** $p < .01$

위의 <표 IV-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F=4.270$). 성별과 지역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8.056$, $p < .01$),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 아동들($M=28.04$)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 아동들($M=25.42$)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9> 성별, 지역별 학년별 가정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13.288	1	13.288	.334
지역별	430.163	1	430.163	10.825**
학년별	453.846	1	453.846	11.421**
성별 * 지역별	498.777	1	498.777	12.551***
성별 * 학년별	137.873	1	137.873	3.469
지역별 * 학년별	249.890	1	249.890	6.288*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74.250	1	74.250	1.868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IV-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었다($F=10.825$).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가 매우 있었는데($F=11.421$, $p < .01$), 그 내용을 보면 4학년 아동들($M=34.00$)의 가정 자아존중감이 6학년 아동들($M=32.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지역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551$, $p < .001$).

<표 IV-10> 성별, 지역별, 학년별 학교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성별	48.534	1	48.534	2.236
지역별	1.207	1	1.207	.056
학년별	157.699	1	157.699	7.265**
성별 * 지역별	31.921	1	31.921	1.471
성별 * 학년별	.603	1	.603	.028
지역별 * 학년별	78.179	1	78.179	3.602
성별 * 지역별 * 학년별	73.562	1	73.562	3.389

** $p < .01$

위의 <표 IV-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과 지역에 따른 학교 자아존중감은 $p >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학년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265$), 그 내용을 보면 4학년의 아동들($M=22.52$)의 학교 자아존중감이 6학년의 아동들($M=21.5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전체 집단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의 상관(r)

자아존중감 진로인식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자아인식	.55***	.45***	.42***	-.05
일의 세계에 대한 관심	.37***	.29***	.33***	-.05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42***	.35***	.28***	-.16***
장래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48***	.32***	.31***	-.14**

** $p < .01$ *** $p < .001$

위의 <표 IV-11>와 같이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간에는 전체적으로 $r = .50$ 로 제법 상관이 있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인식 수준을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간에는 여학생의 진로인식 평균치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이는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능, 거주지 및 연령을 들고 있지만,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Nelson(196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 사회화와 사회적 편견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진로 인식하는데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른 진로인식의 수준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아동들이 농촌지역의 아동들보다 진로인식에서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송효재, 2001)와 일치한다. 학년별 진로인식 수준은 6학년이 4학년보다 평균치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신철, 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 발달단계에 맞게 진로 인식의 목표와 내용이 조직화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인식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아존중감을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이는 신철(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농촌 지역의 아동들보다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별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4학년이 6학년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양상이 뚜렷해지며 발달하나 12세쯤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아진다고 하였다(정영숙, 2001). 6학년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의 발달과 성장을 경험하여 성숙에 따른 정신적인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수용에서 혼란을 야기하여 비판적인 자기평가가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신철, 1997; 송효재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은 주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개인의 평가 등이 건전한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 도시지역 아동들에 비해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진로인식, 자아존중감에서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도시지역의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 소질, 흥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올바른 진로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상담이나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농촌 지역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전인교육에 힘써야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전체적으로 진로인식은 도시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능력배양에 힘써야 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도시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낮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생활을 통해 건전한 인간성을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학년별에 따라서 4학년보다 6학년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높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는데 이에 따르는 학년과 개인차에 따르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생활습관과 자아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제 언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에 맞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진로인식의 확립과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관심이 촉구되며 아울러 현직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진로인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으로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만을 규명했는데, 후속연구로는 성취동기, 성격, 불안 등과 진로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아동들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교육주간운영, 현장 체험학습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년의 특성에 맞게 재량시간 운영 및 교과활동을 통하여 진로인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이종 (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정 역(1987).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서울: 문음사
- 김경주 외(1999).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김봉환 외(2003).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원중 (1984).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자성 (2001).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충기 (1994).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 _____ (1996).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나기원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진로의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향

- 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 박주하 (1990) 초등학교 아동, 학부모의 진로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시 교육연구원(1991). 진로탐색 지도 자료.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성낙철 (1998).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명자 (200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효재 (2001). 도서벽지와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개념·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동용 (1996).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재창 (1988). 생활지도. 서울: 문음사.
- 이정근 (1981).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훈구 역(1997).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임균택 (2000).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 대학원.
- 장광수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석민 외(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숙 (2001). 청소년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최효순 (200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환경 및 개인변인과의 인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2002). 충남진로교육 제18호. 충남: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1982). 진로교육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 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airns, R. B., & Cairns, B. D.(1988). The sociogenesis of self concepts. In N. Bolger. A. Caspi, G. Downey. & M. Moorehouse.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New York :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_____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Vol. 1, no. 1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inzberg, E.(1951). *Career Maturity Inventory : Theory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Korman, A. K.(1966). Self-esteem variable in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 479-486.
- _____ (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1, 65-67.
- Mack, J. E.(1983). Self-Esteem and Its Development: An overview. In J. E. Mack & S. L. Ablon(Eds.),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pp. 1-42).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itchell, L. K., & Krumboltz's theory, J. D.(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et al.,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 Jossey-Bass.
- Morrison, T. L., Thomas, M. D. & Weaver, S. J.(1973). Self-esteem and self-estimates of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12-415.
- Nelson, R.C. (1963). Knowledge and Interests Concerning Sixteen Occupation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23.
- Rogers, C. R.(1959).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30, 88-92.

- _____ (1953). A Thoe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No, 4.
- _____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_____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_____ (1963). Career Development : Self-Concept Theory. New York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Miran Kim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seventh education curriculum aims to nurture active and creative Koreans for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of 21 centur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identifying its subsections that are practices of student-focused education of aptitude, ability and career. Hence, as a clear targeting of career objective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relevant career education enables them to recognize appropriate career for themselves, the basis of self-actualiz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must be settle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by examining and analysing differences of sex, region and level.

This study selected 536 samples from 4th and 6th 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 city and S town of Chungcheong province. Career awareness test and self-esteem test is used as a measurement,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of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M, SD, r) is made for each variable, and the significance was tes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nerally there is very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of career awareness ($F=16.817$, $p<.001$), which contains that urban children has higher career awareness ($M=120.22$) than that of rural children ($M=113.87$).

In subsections of career awareness,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is higher than that of rural children, and the attitude & for career and values of girls is higher than that of boys. In terms of the career planning, urban children and 6th year students are higher than rural children and 4th year students.

Second, self-esteem generally has very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 ($F=12.123$, $p<.01$), which contains that the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M=106.50$) is higher than that of rural children ($M=101.80$). In comparison of different form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is as much as $p<.01$ level ($F=11.046$), which contains 4th year students ($M=105.63$) have higher self-esteem than 6th year students ($M=102.05$). In subsections of self-esteem, gross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are higher than rural children. In terms of family self-esteem, urban children and 4th year students have higher figure than rural children and 6th year students. In school self-esteem, 4th year students had higher level than the 6th.

Third, the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are generally related as $r=.50$, it was very significant at $p<.001$ level. All subsections of career awareness had positive relationships except the school self-esteem.

According to the result, rural children had relatively low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This is presumably due to relatively poor circumstances for rural children, comparing to that of urban children. †

Therefore rural elementary schools should try to let them have appropriate career awareness by associating with family, school and local society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experiences for the self perception of aptitude, nature and interest. In addition, we have to strive for the whole-minded education increasing the self-esteem of rural children and giving them positive thinking through career counselling, personal counselling and group counselling.